

부활 제 5 주일

기도서 298면 (C해)

제1독서: 사 도 14, 20b-27

제2독서: 목 시 21, 1-5a

복 음: 요한 13, 31-33a, 34-35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34C).

□ 강 론



사랑 :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道)

권 이 복 신부

서품식에 참석했던 한 교우가 이런 질문을 해왔다.
“신부님! 신부님은 땅에 엎드려 있을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말없이 ‘썩’ 웃고 말았지만 그때 감격에 찬 기도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난 이렇게 기도했었다.

“님아! 내 일생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비록 귀가 먹고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행여 내가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사제의 웃을 벗고 평신도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만이 내 한생 내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엄청난 기도였다. 현대, 그같이 경사스런(?) 날 왜 하필 그런 불길한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어린 나이지만 사람의 행복은 오로지 ‘사랑’으로써만 가능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별다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나에게 하느님의 나에게 대한 사랑을 느꼈을 때 주어진 행복은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길만큼 깊고 그윽한 것이었기에 ‘사랑’ 안에서는 그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비록 참으로 작은 사랑, 갈대 끝같은 가냘픈 사랑일지라도 사랑이 있는 곳엔 희망과 기쁨이 함께 한다. 그 사랑이 비록 메아리없는 짝사랑일지라도 사랑이 있는 곳에 곧 행복이 있다. 만약 누군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때론 생명까지 포기할지언정 ‘사랑’ 하려는 노력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이다. 상대를 위한 “성실한 죽음” 이것이 곧 사랑이다.

그이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을 “죽이는 것” 내 욕심, 욕정, 이권을 “죽이는 것” 더 나아가 목숨까지 “죽이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란 말로 대신 표현되는 것이다. 자신을 죽이지 않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상대가 자신을 살려주기만을 바라는 사랑은 “욕심 이기주의”의 변신일 뿐이다. “죽음”은 고통스런 것이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 본성을 거슬러 스스로 죽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허나 인간으로서서는 불가능한 “사랑의 죽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삶, 사랑때문에 겪는 “죽음의 행진”은 곧 영원한 삶(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道)임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랑”의 새 계명은 지켜야 할 율법의 굴레가 아니라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헌한, 그러나 희망찬 길(道)임을 알게 된 것이다.

(동산천주교회 주임신부)



교수들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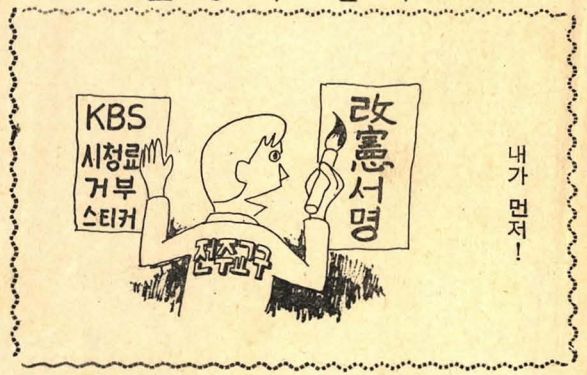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난 22일 현재 17개 대학에서 506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한다. 대학교수가 아니라도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으로도 그러할 수 있다.

문교부의 분석에 따르면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의 85%가 30~40대의 해방이후 세대며, 학문 분야별로는 80%가 인문·사회계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젊은 지성들의 고민의 일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아직은 506명이지만, 이들의 주장을 목소리의 크기(숫자)로 비중을 따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들이 무어라고 선언을 하든, 그 바닥에는 제자리를 찾고자 하는 지성들의 몸부림이 있음을 놓쳐서도 안된다.

지금 우리에게만 개헌서명·시국선언·KBS TV 안보기와 시청료 거부운동 등 실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적거리들이 산적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지혜와 결손이 필요한 때이다. 양심의 소리, 시민의 소리를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된다. 결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교부의 한 관계자가 말한 “정제 운운”에서 꼭 맥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다.

학생들의 시위가 극렬했을 때, 우리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한 말씀」 하는 시민들을 많이 보았다. 전국 각지에서 선택된 그들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다. 어쩌면 그리도 전해가 꼭 같은가! 다른 각도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텔레비전이 용납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선택된 시민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스위치를 끄고 만다. 텔레비전이 등장인물을 선택하듯이 시청자들도 텔레비전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숨 정 이 산 채



내가 먼저!

성 명 서

한국 천주교회의 신도수는 230만이며 전국 14개 교구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와 교회단체를 대표하는 기구가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이다.

교회안에서 신도의 역할은 성직자와 더불어 진리의 협조자(평신도 교령 6항)가 되는 것이며 또한 현재 질서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다(평신도 교령 7항).

신도는 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현실속에서 살고있는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 신도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할 두가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는 지난 정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의 현재질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1) 교회 신도이면서 국민인 한국 천주교 신도들은 K·B·S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키로 한다. T·V 시청료는 K·B·S가 광고방송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실시된 재원조달 방법이다. 따라서 광고방송과 시청료 징수는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 된다. 이에 우리 모든 국민과 더불어 K·B·S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밝혀둔다.

2) 천주교회는 인권수호의 선봉자다. 따라서 인권침해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교황 바오로 6세 1972년 연

설) 오늘날 한국에서는 기본적 인권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보도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가 국민이 알고 보고 듣고 말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매체들, 특히 K·B·S는 그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은 보고 들을 인간의 권리(사목 헌장 26항)에 대한 모독이다.

이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정성이 보장될 때 한국의 민주화와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를 위해 모든 보도매체의 기능 정상화를 촉구한다.

3) 천주교회는 정의를 선언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다. 특히 신도들은 현실을 복음적으로 분석, 식별, 판단할 책무가 있고 현재질서 안에서 살면서 그것을 복음화할 고유한 의무가 있다. 이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는 앞으로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면서 정의와 인권과 자유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4) 한국 천주교 신도들은 우리의 고유한 사명인 현재질서의 복음화를 자각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적 예언자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신앙의 눈으로 앞으로의 귀추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

□성서교실 ㉔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요한의 최후 만찬의 기사(13:1-30)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교별사(13:31-17:26)는 베드로의 장담(13:36-37) 같은 것은 뻔하다 하더라도, 신약성서 가운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긴 내용이다. 13장 31-35절(새 계명)은 13장 31-14장 31절 취지의 요약이다. 예수가 하느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곧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13-17장에는 예수의 인간적인 애정이 넘쳐흐르고 있는데, 특히 13장 31-35절 속에는 가장 훌륭한, 예수 마음의 단면이 보여지고 있다.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다. 형제들 간의 사랑, 이것을 예수는 「새로운 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낡은 율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새롭다」는 것이 일반의 통설이다. 구약에는 「인인애」(隣人愛)인 것에 비해서 신약에는 「형제애」(兄弟愛)인 것이다. 전자는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 이상으로 사랑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중의 하나인 것이다(루가 10:27 참조). 그러나 후자는 유일한 것으로, 이 가운데 모든 율법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다(마태 22:36-40, 롬 13:8-10, 갈라 5:14, 야고 2:8).

회랍 말에는 「새롭다」는 말이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다. 전자는 아직 남아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새롭다」는 것이고, 후자는 아직까지 없었고, 전혀 새롭다는 의미에서 「새롭다」는 것이다. 「새 계명」은 후자를 쓰고 있다.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루리포니아)

-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친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넥터

서울주단

☎ 30453 305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칼라TV·VTR·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 일체



금성복전주대리점

팩토리링 분할 판매

(교우분은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안춘기(베네딕토) 김금수(세시리아)

※ 금성 부녀사원 모집중 전북대학교 입구
☎ 3-2419 74-2419

교 구 소 식

1. 교구 홀인법원 : 29일 (화)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사무국
 2. 50주년 상임위원회 : 5월 1일 (목) 오전 10시
 3. 4월 전주 시민강좌 : 민주주의와 헌법, 일시-29일 (화) 7시30분, 장소-중앙성당
강사-이돈명 변호사, 주최-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4. 필리핀 사진 전시회 : 일시-26일~5월 2일 (오후 2시~9시)
장소-가톨릭센터 (후문) 교육관, 주최-전주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5.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5월 1일 10시~오후 4시, 장소-덕진천주교회
준비물-미사준비·도시락, 강사-김봉희 신부님·양경배 신부님
 6. 신태인분당 동막공소 낙성식 : 5월 2일 오전 11시, 주교님 집전으로
 7. 꼬미시움 및 꾸리아단장 회의 : 5월 3일 (토) 오후 3시, 장소-전동천주교회
참석대상-꼬미시움 및 꾸리아단장
 8. 베소라 피정 : 5월 3일 오후 2시~오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참가비-3천원, 참가대상-베소라반 (주·야) 및 베소라성서에 관심있는 형제들
강사-김동준 신부님·지정환 신부님·김동근 목사님·박종민씨
 9. 성미후원회 월레미사 : 5월 12일로 연기합니다
 10. 전화번호 변경 : 복자천주교회 사제관 83-0592
- ☆ 축! 영명 : 성필립보·야고보 사도 (5월 3일)-성민호·김동준·박병준 신부님 축하합니다

※ 제1지구 사목회원 연수회 : 대상-제1지구 본당 사목회원 (분과위원장급)
일시-27일 오후 2시~6시, 장소-가톨릭센터
주제-86년도 사목지침 (가정·본당·교구공동체)
강사-김동준·문규현·김진소·김환철 신부

※ T·V 시청료 거부운동도-

교구 평신도 협의회 (회장 : 김인협)에서는 전국 평협에서 실시하기로 한 텔레비전 시청료 거부운동에 본 교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 이에 전국 평협에서 발표한 시청료 거부운동에 대한 성명 (순정이 2면 참조)을 지지하고, 본 성명서와 스티커를 각 본당에 배포하기로 했다.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교구내 모든 신부님들, 개헌 위한 서명키로-

지난 22일 교구 춘계 사제총회가 열렸다. 교구내 모든 신부님들이 모여 교구 사목적 제반 현안문제를 검토, 분석, 토의해서 보다 나은 사목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중요한 회의인 것이다.

이날, 각 지구에서 제시된 여러 안건이 진지하게 다루어지면서, 특히 현 시국에 관한 문제가 특별한 관심으로 토론되었는데, 현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문제를 심각히 토론, "개헌에 대한 견해 표명은 국민의 기본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구내 모든 신부님들은 개헌을 위한 서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러한 뜻을 각 본당 신자들에게도 알림으로써 교구내 모든 신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다.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100 : 1~5 복음 : 루가 13 : 18~21

요심이 (664) 김병오



유신시대 때
깃발날린 나으리!



당신이 부정축재했고
금으로 만든 소까지
있었다는것을 국민은
아직 잊지 않고 있는데



지금 돌아다니는
빠르지 않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성체와 가정을 위한 슬라이드

성바로 시청각 교리교재 연구소에서는 성체와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혼탁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성체를 중심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편의 슬라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성체성사 (대여가격) : 2,000원
홀인성사 (") : 1,500원
묵상용 : 가정 (") : 1,000원
마리아 고례피 성인전 (") : 2,500원

※ 비디오 대여합니다

구입처 : 성바로서원 ③3398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서원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인사 말씀

금번 저의 부친상시 여러 신자분들께서 물질상면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지당할줄 사퇴되오나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1986. 4. 23
유영문(가예따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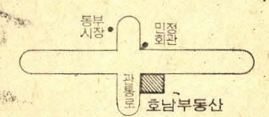
부동산 투자 상담 (토지, 임야, 상가, 주택, APT 등)

- * 컴퓨터 정보처리 (전북 최초)
- * 2,000만원 영영보증제 실시

호남부동산 중개 유한회사

오재천 (안드레아)
(인평성당 사목회장)

전주 ☎ 75-0247
(관동로 민정회관 옆 2층)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금주는 가정주교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우리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 주일금 배가운동: 교구설정 50주년 사업을 위해 주일헌금 배가운동에 적극 협조합니다
3. 본당 웅변대회: 원고접수 오늘까지입니다. 참가대상-초·중·고·일반, 주제-성소에 관해서
4. 구역봉사자 모임: 5월 1일 성체강복후 8시30분 봉사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5. 본당 울드레아: 5월 1일 저녁 성체강복후 본당내의 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바랍니다.
6. 부녀회 월례회: 29일 어머니미사 후
7. 토끼저금통 속히 봉헌합시다: 사제양성을 위한 우리들의 정성을 빠짐없이 봉헌합시다
8. 문학강연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 공소회장단 회의: 29일 오후 3시, 신교리공소에서
10. 가톨릭성가 카세트 판매: 오늘 각 미사중에 성가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많은 구입을 바랍니다
11. 공소 순회미사: 5월 3일 저녁 8시, 신원리공소
12. 금주의 전례: 해설-박상규, 독서 및 봉헌-김용기 부부, 신자기도-이찬환 부부, 촛불봉헌-최영복·김영래 자매님
차주의 전례: 해설-이중광, 독서 및 봉헌-김환창 부부, 신자기도-이윤우 부부, 촛불봉헌-서미란·전영순 자매님
□ 지난주 봉헌금: 483,915원 교무금: 380,000원 신축금: 140,000원

- 5. 본당 전화개통: 사제관 82-5079, 사무실 82-5434 ※ 사무실 5월 10일 개통예정
본당 전화부 작성: 교우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6. 개혁신명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밝힙시다
7. 시청료납부 거부운동: 스티커를 때문에 붙여주세요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감 덕 참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제2성당 주일미사: 오전 9시, 오후 2시
2.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3. 자모회: 6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4. 사목회: 8일 오후 8시
5. 봉성체: 9일 오후 2시
6. 돼지·토끼저금통: 한분도 빠짐없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7. 주일학교 소풍: 오늘 오전 9시30분출발, 구이저수지 감사합니다: 목련·장미 기증-김토마스, 철쭉 12그루-김길석 기증
9. 오늘 봉헌: 제2성당-오수환부부, 본당-김낙균부부 차주 봉헌: 제2성당-김광탁부부, 본당-김한기부부
10. 치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최창립, 독서-①차상렬 ②문치구
공식미사: 해설-고복근·고정수, 독서-①이정빈 ②조정웅
저녁미사: 해설-강경화, 독서-①진경선 ②유명환
□ 지난주 봉헌금: 제2성당-113,440원
본당-250,640원 계-364,080원
교무금: 143,000원 미수금: 55,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5월은 성모성월: 매일 미사후 묵주기도 (성모상 앞에서)
2. 사목회 연수회: 오늘 오후 2~6시, 교구청
3. 사목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4. 제대회: 5월 3일 오전 11시
5. 대학생 정기총회: 5월 6일 오후 5시
6. 자모회: 4일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7. 미사에 성서·기도서·성가책을 꼭 지참하세요
8. 예비자교리: 목요일 저녁미사 후 신부님 지도 주일 공식미사 후, 김수녀님 지도
9. 감사합니다: 팍크리스티나씨 철쭉 22주, 백일홍 3주 기증
10. 연풍성지 순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11. 사순절 저금통: 안내신분 속히 내주세요
지난주 누계 174개 963,632원, 금주 23개, 86,559원
197개, 누계-1,050,191원
12. 금주정소: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차주정소: 월-평화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13. 금주전례: 해설-김계석, 독서-①이갑진 ②김인식
봉헌-이병현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장기연 ②장주호
봉헌-엄기택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6,036원 교무금: 636,950원 특별헌금: 107,09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1. 꾸르실료·울드레아: 오늘 공식미사 후 천꾸르실리스타 참석바랍니다
2.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3. 사목회·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4. 첫영성체식: 5월 18일 오후 3시
5. 예비자교리반 안내: 금요일(일반)-오후 8시 토요일(중·고생)-오후 5시 일요일(일반)-오전 11시
6. 짧은이미사: 매주(수요일과 주일) 오후 7시30분
7. 다음주 봉헌담당: 황근용 부부
8. 감사: 성심상 주변 나무심기에 협조해주시는 분께 차바오로 부부, 문형래
9. 매일 묵주기도: 성도의 성월을 맞이하여 5월 1일부터 오후 7시 성모동굴 앞
10. 성체강복: 5월 1일 저녁미사 후 (매달 첫목요일 저녁미사 후)
11. 부활! 영세자 모임: 5월 1일 오후 7시30분 부활절에 영세하신 분들의 첫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날 공동고백 있습니다
12. 중·고등학생 미사시간 변경: 일요일 오후 5시(중·고생만 나오세요)
중전의 오전 8시30분미사는 일반미사로 그대로 있음
□ 지난주 봉헌금: 896,400원 성소주일금: 204,890원 교무금: 430,5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우

- 1. 특별헌금: 본당 전화봉기 2차헌금 있습니다 ※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2. 본당 우정의날: 30일 저녁 (청소년과의 대화)
3. 본당 사목회 월례회: 5월 2일 저녁미사 후
4. 교무금 납부주일: 다음주일 (월납제를 지켜주세요)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사목회의: 5월 3일 저녁 8시30분
2. 주부 성서대학: 30일 오전 10시, 사도행전⑧
3. 중·고 지도교사 모집: 초·중·고 교사중 뜻이 있는분 남·녀 각각 2명씩
4. 성모기사회: 5월 3일 오후 1시30분
5. 유아세례: 오늘 10시 자모회: 오늘 11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464,170원 교무금: 642,500원